



# 남한산성 산행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더불어 남북으로 서울을 지키는 요새로 백제 때부터 성을 쌓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은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에 가까운 가벼운 발걸음을 하기 좋으며, 주요 길목마다 역사의 흔적이 깃든 문화유적들을 만나게 되니 더욱 뜻깊다. 수도권 최대의 소나무 군락, 가을 단풍과 겨울 눈꽃도 여느 명산 부럽지 않게 장관을 이룬다.



## 주변 광광명소

### 산성공원 2B



남한산성에서 흐르는 계곡을 끼고 조경시설과 조형분수, 조형분수, 옥상정원, 놀이마당 등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유원시설이 잘 꾸며져 있다. 주변에는 민속공예전시관, 발자압장, 매편과 음식점, 넓은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가족 나들이나 친목 모임, 데이 트 장소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성남의 대표적인 유원지다.

- ☞ 중원구 은행2동
- ☞ 462, 4419, 30, 30-1, 333, 720, 720-1, 70, 340

### 남한산성산림욕장 3B



남한산성 계곡에서 황송공원 표지를 따라 내려오는 길목에 조성된 산림욕장이다. 울창한 숲 사이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을 걸으며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으며, 사시사철 싱그러운 소나무 향과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상쾌한 기분울 느낄 수 있다. 출렁다리, 나무 벤치 등 정담을 나누어 쉬어가기에 적당한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고 맨발로 걷는 길도 체험해 볼 수 있다.

### 은행식물원 3C



은행공원과 이웃하고 있는 은행자연관찰원에서는 용도 폐기된 배수지의 벽체를 이층담에 탈바꿈한 연못을 볼 수 있으며 덩굴식물원, 향기원, 관목식물원, 단풍나무 숲, 채소원, 유실수원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연체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깨끗하고 조용한 시민휴식공간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 주요 등산명소

### 남문십터 2A



남한산성 남문(지화문)은 성남쪽에서 올라가는 주출입문이다. 남한산성의 역사를 새롭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남문 구간을 옛터를 복원한 역사십터를 조성하였다. 웅장한 남문과 그 앞에서 있는 380여 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조화를 이뤄 고즈넉한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남문 부근에 벤치가 놓여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다.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는 남한산성 축조 당시, 성곽 사면 유실 방지 및 치폐의 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영춘정지 2B



'별을 맞이하는 정자'라는 뜻을 지닌 영춘정지는 남한산성을 오르는 산성로 좌측의 구릉 정상에 위치하는데, 좌우로 성남시와 서울시 일대가 한눈에 조망되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팔각 형태를 띤 원형 주초석 8기와 약 450cm가량 흔적이 남아 있는 기단석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남한산성 내 천주봉에는 영춘정 현판을 옮겨와 새로 건립한 정자가 있는데, 팔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팔각정' 이라 부른다.

### 불망비 2B



조선 후기의 문신인 수어사 서명응, 부윤 홍익필과 이명중 등이 백성을 사랑한 공적을 잊지 말자는 내용을 각각 3기의 비에 새긴 것이다. 백성 파도문이 수려하게 돋보이는 높이 2.2m, 너비 2m, 두께 3m가량 크기의 화강암 앞면을 평평하게 다듬고 각각 종열로 돌출되게 앙각한 특이한 형태이다. 남한산성 남문 매표소에서 산성로를 따라 약 700m를 내려가면 도로 오른 쪽하남시와의 경계 지점인 구릉 정상에 있다.

### 연리목 5B

연리목은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다 한 나무로 합쳐진 것을 말한다. 연인이나 부부간 돈독한 사랑에 비유해 '사랑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한산성 등산로 갈마터널 부근에 자생하고 있다.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을 비롯한 10여 종의 체력단련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 ☞ 중원구 은행1동 1932 일대 ☞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에서 버스 이용

### 황송공원 3C



황송공원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단체운동은 물론 개인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기구를 배치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과 연계되는 등산로의 개발로 등산과 산림욕 등을 제공하는 근린공원이다. 공원 내 발자압장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압보도와 자압장, 개류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밖에 국의 참전용사비, 교통 교육장, 야생화단지 등 야외 문화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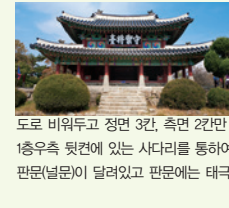
- ☞ 중원구 금광1동 59
- ☞ 100, 3-1, 57, 33, 33-1, 55, 340-1, 720, 720-1, 60번 버스 이용

### 희망대공원 2C



본래 놀이동산이었던 부지를 공원시설로 바꿔 조성하였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도심중앙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으며, 분수대와호수, 잔디밭 등 조경이 잘 되어 있다. 테니스배드민턴, 게이트볼, 발자압장 등 운동시설 각종

### 수어장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호 2A



남한산성의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부에 있는 수어장대는 지휘 및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각이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군대를 지휘하여 청나라 태종의 군대와 45일간 대항하고 싸운 곳으로, 성내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1층의 사방 1칸은 북도로 비워두고 정면 3칸, 측면 2칸만 장마루를 깔고 사방에 높이 45cm의 난간을 돌렸으며, 2층은 1층우측 뒷면에 있는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2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방에 판문(널문)이 달려있고 판문에는 태극무늬를 그렸다. 천정은 연등(삿갓천정)이다.

### 망경암 마애여래좌상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2호 1D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하여 망경암(望景臺)이라 부른다. 망경암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이 친히 거동하여 백성의 평안을 빌었던 곳이라고 한다. 칠성산과도 관련이 깊은 곳으로, 세종의 아들 평안대군과 손자 제안대군의 명복을 빌어는 칠성당이 세워진 적도 있다. 암벽에 불상을 새겨넣은 망경암 마애여래좌상과 이규승이 1887년에 절을 세웠다는 문장이 새겨진 비석을 눈여겨 볼 만하다.

- ☞ 수정구 북정동 553-1

### 봉국사 대광명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호 1D



영양산 기슭에 터를 잡고 있는 봉국사는 고려 현종 19년(1028)에 창건, 태조 4년(1395)에 중건한 사찰이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후 몇 차례 재건, 복원되었다. 현종임금은 어려서 일찍 죽은 명혜, 혜선 두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절을 지었다고 전한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조선후기 18세기 불전형식을 지닌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형태를 갖췄다. 본래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법당이나 이 절에는 중앙에 나무로 만든 아미타여래좌상을 모시고 좌우로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있다. 장중한 외관과 기단 양쪽의 사자 조각상이 인상적이다.

- ☞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태평동)
- ☞ 마을버스 7번 이용, 봉국사 정류장 하차

편의시설, 각종 공연을 상영하는 야외공연무대가 갖추어져 있고, 공원 내에 경기도립도서관과 성남시 청소년수련관이 자리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다.

- ☞ 수정구 신흥동
- ☞ 2, 2-1, 5, 9009, 88, 88-199, 36, 66, 30, 570, 303, 407, 4419, 462, 100, 116-3, 17, 17-1, 2-1, 240, 3-1, 30, 30-1, 33, 340, 51, 52, 57, 70, 77-번 버스 이용

### 모란민속장 3D



매일 팔자리 4, 9일에 열리는 모란민속장은 일평균 5만여 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시장이자, 1962년 소규모 농촌정기시장으로 출발하여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전통시장이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5일장으로 발전하였다. 면적은 약 10,500㎡, 길이는 약 300m, 폭 30m, 모란장에 관여하는 상인의 수입 해아려도 1,000여 명에 이른다. 급하는 품목은 화훼, 양국, 약초, 의류, 신발, 잡화, 생선, 민물, 야채, 고추, 애견, 가금, 음식 등 다채로워 월기 넘치는 장터 풍경과 이색적인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하여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

- ☞ 중원구 성남동 610 ☞ www.moranjang.org
- ☞ 09:00-19:00 (장날 : 매일 4, 9, 14, 19, 24, 29일)
- ☞ 잠실에서 모란역을 경유하는 분당행 버스 이용, 수원(2007), 잠실(116)의 다수